제주 일부 마을어장서 전복 대량 폐사

올해 2월말 법환동 시작으로 3곳 마을어장서 피해
상당수 알맹이 없이 빈 껍데기만 남거나 검게 썩어
3곳 모두 해조류 잘 안자라 따뜻한 겨울 원인 추정

제주지역 일부 마을어장에서 해녀들의 주요 수입원인 전복이 13년 만에 대량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해 수산당국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2월말 서귀포시 법환동 마을공동어장을 시작으로 서귀포시 태흥3리와 위미2리 마을어장에서 전복이 대량 폐사하고 있다.

폐사한 전복은 알맹이가 시커멓게 변해 썩었거나 빈 껍데기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주민들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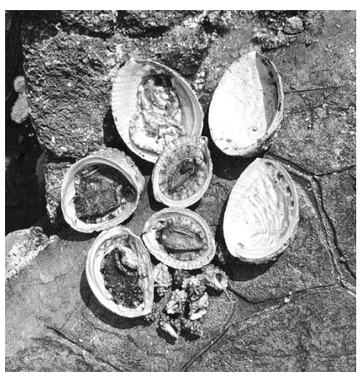
고승철 법환어촌계장은 "평소 마을어장에서는 하루 평균 50~60㎏의 전복이 채취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채취량이 10~20㎏으로 뚝 떨어졌다"면서 "해안가와 가까운 연안 바다에는 전복이 아예 없어 물질 실력이 뛰어난 상군 해녀들만 먼바다로 나가 전복을 따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환동은 도내에서 전복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전복 폐사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제주도해양수연구원은 지난 겨울 유난히 따뜻했던 날씨가 이번 사태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양병규 도해양수산연구원 연구사는 "피해 어촌계 마을어장에 잠수해 조사한 결과 알맹이가 없는 전복을 대량 발견했으며, 공통적으로 전복의 먹이가 되는 미역 등 해조류가 잘 자라지 않는 현상을 확인했다"면서 "전복이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양 연구사는 "지난 겨울 따뜻한 날씨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조류가 잘 자라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피해 어촌계 바닷속 수온은 평년보다 1℃ 가량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제주지역 평균 기온은 9.6℃로 기상 관측 이래 5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양 연구사는 "폐사한 전복을 수거해 전염병 감염 여부를 분석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면서 "다만 전복 폐사 원인에는 먹이 부족 말고도 담수, 폐수, 천적 생물 유입 등 다양한 조건이 있는 만큼 심층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녀들이 마을 공동어장에서 건져 올린 폐사한 전복들. 사진=법환어촌계 제공

제주도 관계자는 "3곳 어촌계를 제외한 나머지 마을 공동어장에서는 전복 폐사 사례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폐사량은 추산할 수 없는 상태로 연구원 측의 심층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1996년과 2007년에도 전복 대량 폐사 사태가 발생했다. 1996년에는 도내 마을어장에 유입된 저염분수 영향으로 소라와 전복 등 수산생물 약 184t이 폐사해 59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2007년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남제주화력발전소 인근 양식장에서 100여만 마리의 전복이 폐사했다. 2016년엔 저염분수가 제주 서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유입되는 일이 있었지만 당시 전복 폐사량은 소량이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김녕농협 "전출 직원 상대 부당노동행위 없었다" 반박

김녕농협은 지난 20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김녕농협 측이 한림농협에서 부당하게 전적(소속을 옮기는 일)해 온 직원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1일 반박했다.

김녕농협 관계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림농협에서 김녕농협으로 전적된 A씨를 모든 회의에서 배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업무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면서 "A씨는 한림농협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김녕농협으로 전출시킨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와의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이번 전적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전체 직원에게 지급된 마트이용권을 A씨에게 줬다가 회수한 것에 대해선 "총무팀에서 단순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박탈감을 준다거나 어떤 의도를 갖고 이용권을 회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상민기자

먹이사냥하는 왜가리 21일 제주시 구좌읍 해안가에서 왜가리들이 먹이사냥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올 1~4월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보다 30% 감소

올해 들어 제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도내에서 20명이 교통사고로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31%)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폭은 강원(-58.3%), 인천(-50.0%)에 이어 3번째로 컸다.

반면 광주(100%), 울산(16.7%), 경남(11.1%), 충남·대전(9.5%), 부산(8.6%) 등 7개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늘었다.

한편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이륜차(오토바이)에 의한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이른바 점프형 이동식 음주단속과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시 공장설립취소 다툼 1·2심 패소

콘크리트회사, 처분취소 승소
재판부 "직권취소 요건 못갖춰"

제주시 화북동 레미콘 공장 설립 취소 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콘크리트 업체와 제주시가 벌인 법적 다툼에서 제주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는 A콘크리트 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철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6년 12월 제주시 화북동에 레미콘 제조 공장을 짓는 내용의 창업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지만 제주시가 주민들의 교통·환경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이듬해 3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인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승인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사업 계획 승인을 철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1심은 공장 설립으로 인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시의 승인처분 취소가 정당화 할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의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승인 철회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도지사에 주거단지 명예회원 제안 80대 벌금형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고급 주거단지 명예회원 초대권을 제공하려 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장찬수)는 21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 원 지사에게 서귀포시 안덕면 고급 휴양형 주거단지 명예회원 초대권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주거단지의 주민회장이었으며, 원 지사는 이 초대권을 받지 않고 거절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원 지사뿐만 아니라 전 도지사와 시장 등에게도 명예회원을 제안한 적이 있다며 관행일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대가성을 바라고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예회원권으로 도내 영향력 있는 인물을 관리해온 것이 실익을 바라지 않은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6월말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노동력 착취·폭행·임금 갈취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 장애인 약취 유인·성착취·감금·폭행 ▷승선근무 예비역 및 실습선원에 대한 폭행·협박·성추행 ▷장기 조업선 선원의 하선 요구 거부, 강요·노동력 착취·폭행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인권침해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고 인권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해 인권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선원 폭행과 같은 인권침해범죄는 2017년 16건(23명), 2018년 24건(33명), 2019년 24건(25명)으로 매년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의료원 폭행사태 단호히 조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은 지난 9일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병원 노동자가 안전해야 병원의 의료 서비스 또한 안정적으로 제공될수 있다"며 "제주도정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강다혜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1포(100~500평) 사용
"최첨단 융합기술로 탄생한 100% 수용성 입상 스마트비료입니다!"
잡초의 경감
N20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페르카®
높은 저장성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감귤·만감류 영농안내
▣ 당을 올리려면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색이 변할때(노지감귤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양낭막(감귤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엽면시비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귤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지사
곰탱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